

지역 농생명산업 발전 위해 보유 기술 이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정보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 웰앤뷰와 기술 이전 협약 체결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김상남)이 지역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해 자체 보유한 기술을 전주시지역 농생명 기업에 이전해주기로 했다.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7일 정보유한회사(대표이사 엄미섭), 농업회사법인 웰앤뷰(주)(대표이사 주민선)와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유한회사는 '바디나눔 추출물 기반 피부 주름개선 용 조성물' 관련 기술과 상표권을 이전받아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웰앤뷰(주)는 장부착능이 강화된 혼합 유산균 균주 '스트렙토코커스 써모필러스 JAMI-LB-02 및 락토플란티비실러스 플란티움 JAMI-LB-05 혼합 균주'를 활용한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김상남)은 27일 정보유한회사(대표이사 엄미섭), 농업회사법인 웰앤뷰(주)(대표이사 주민선)와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유산균 제품 개발에 나선다. 정보(유)와 웰앤뷰(주)는 연구원 기

술 적용 제품을 올해 안에 시장에 출시하고, 온·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해

매출을 창출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이번 기술 이전 협약을 통해 농생명 소재를 활용한 원천기술이 실제 제품화로 구현돼 사업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전주시 농생명기업의 매출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 관계자는 "연구원의 우수한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남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개발 기술이 전주시 관내 기업에 이전되고, 사업화되어 관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원은 농생명 소재개발과 기술 이전을 확대해 전주시 관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가 맞춤형 교육을 통해 농업에 입문하는 초보 도시농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했다.

초보 도시농부 맞춤형 교육 제공

전주시, 내달 3일까지 도시농업 기초과정 교육생 모집

전주시가 맞춤형 교육을 통해 농업에 입문하는 초보 도시농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오는 9월 3일까지 생활권에서 텃밭을 가꾸는 등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기초과정' 교육생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도시민이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친환경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교육은 오는 9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10회, 41시간(이론 23시간, 실습 18시간)으로 운영되며, 전주시 농업기술과 2층 교육장과 전주시 도시농업체험농장 '도란도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도시농업의 이해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 △토양·

작물 생육 관계 △가을작물 식재 계획 수립 △텃밭 조성·식재 실습 △추비·관수·제초 및 병해충 관리 △친환경 살충제 만들기 △도시농업 속 곤충사육의 이해 △화훼관리와 삼목 △텃밭 수확물 요리·나눔 봉사 등 도시농업 분야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강의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모집 인원은 총 20명 내외로, 전주시에 주소를 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접수기간 내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또는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nongrup.jonju.go.kr)을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서류를 모두 구비한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4일 개별 통보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청원 인권감수성 교육 실시

전주시는 2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실에서 시 소속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5년 청원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공직사회에서의 평등 문화 확산과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실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최성윤 인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이 강사로 초청돼 참석자들과 함께 인권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을 감상한 뒤 특강과 질의응답



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상영된 영화는 성차별이 담연시되던 시대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법 제도의 불합리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 참석자들에게 △성인지감수성 △평등권 보장 △인권적 판단의 중요성 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권희성 기자

지속가능한 전주 가치 체험

'전주 G-투어' 프로그램 하반기 참가자 모집

전주의 공간 변화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전주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주 G-투어' 프로그램의 하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주 G-투어'는 전주의 공간 변화와 전환을 주제로 한 탐방 프로그램으로, 도시재생 현장과 지속가능발전 사례를 시민 눈높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G-투어에 참여한 여행자들은 공간과 사람, 이야기와 파트너십이 어우러진 현장을 걸으며 전주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하반기 투어는 지난 상반기 프로그램에 이어 추진되는 연속 기획으로 총 3개 코스로 운영된다.

3개 코스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간의 이야기(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구)성평등전주~새활용센터다시봄·책기동도서관~전주시에너지센터) △관계를 잇는



골목의 이야기(동문헌책도서관~하안양옥집~전주한옥마을골목길~한옥마을도서관~오목대~자반벽화마을) △마을을 잇는 사람들의 이야기(서화동예술마을도서관~남천교~전주천~동근굴~다가여행자도서관) 등이다.

여행 참가자들은 전주 원도심 일대에서 도시재생시설을 탐방하고, 골목공동체 사례를 체험할 수 있다.

또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의미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여정에 나서게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나서

전주시와 전주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고영철)는 27일과 28일 시청 강당에서 전주시지역 보육교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주시지역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보육교직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학대 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교육은 '아동학대 니어미스(Near Miss) 예방 교육'으로, 푸르니보육지원

재단의 강연자 강사가 강연을 맡아 △니어미스의 개념 △발생하는 상황 △대처 방법 등을 소개했다.

특히 엄 강사는 영유아 지도 시 부정적 요소가 나타나는 상황 등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 등을 일과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이번 교육에서는 전주시 보육 발전에 기여한 보육교직원 19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완산도서관, 그림책 일러스트 전시

전주시 완산도서관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도서관 완산마루(전시장)에서 그림책 일러스트 전시 '피어나는 순간, 날아오르는 상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휘녕 작가(그림)의 그림책 '사과꽃' (김정배 글)과 서정아 작가(글)의 '투명내비와 마법의 물' (나카 차이코프스카야 그림)에 수록된 일러스트 50여 점이 전시돼 관람객들은 그림책을 통해 '피어나는' 따뜻한 이야기와 '날아오르는 상상'의 자유를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전시에 참여한 김휘녕 작가는 일러스트 스튜디오 아트소사이어의 대표로 전주를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시작인 '사과꽃'은 한국전쟁 시기 희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평화를 기원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책이다.

또한 '투명내비와 마법의 물'은 서정아 작가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도중 영감을 받아 쓴 작품으로, 소녀 파디아가 숲에서 길을 잃고 마법의 물과 투명내비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어 환상적 설정과 감동적인 메시지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특히 '투명내비와 마법의 물' 전시에는 주인공 파디아의 모험을 따라가는 체험형 전시로 구성됐으며, '사과꽃'은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펼쳐지는 2025년 '제8회 전주독서대전'의 폐막식 공연작이기도 하다.

전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금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완산도서관(063-230-18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